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2호 [부제 제 2509호] 주제 104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사설

###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자

동해어장에서 도무제잡이가 시작되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승리의 용광로를 불어 온 나라에 사회주의 바다창기 차근차근 활 불갈은 결의를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농산과 축산, 수산은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산부문에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내는 일꾼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부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원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에 바다창기가 풍기게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지난 5월 신로연양수산연합기업소를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사회주의 바다창기 차근차근 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황금해력의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법을 활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심장마다 새겨안은 수산부문의 일

꾼들과 근로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올해에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울릴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서해의 수산사업소들마다에서 《단풍》호계별의 고기배들을 자제로 무어내고 이미 있는 고기배들을 현대화하여 충분한 어구자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맹렬히 벌어져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출어일수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확립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포구와 어장마다에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왔다.

수산부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비롯하여 영웅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받들고 결속하여 당면한 겨울철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원을 마련함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에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향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10월의 경축광장에 높이 울려 퍼진 승리의 환호성, 라신시와 미래 과학자거리에서 리저오른 로동당 만세소리는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뚜렷이 부각시켜주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의 3대축의 하나인 수산부문의 우리 당의 인민중심,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실천으로 받들는데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전역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 결사관철하여 황금해의 새 역사를 개척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로동계급처럼, 백두의 넘과 기산안고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처럼 비상한 각오와 결사의 실천으로 황금해력의 대문을 기어 올라야 할 무궁도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어깨에 지워져있다.

당면한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당과 조국, 시대앞에 지닌 승고한 임무를 빼어 내고 비상한 각오로 떨쳐나서는데 달려있다.

일꾼들부터 물고기잡이전투도 사회주의호전선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단정하고 1선향후에 선 최전선 최후방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사무실이나 포구가 아니라 낚시터의 한복판, 중심 어장의 고기배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배기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일꾼들의 심장에서부터 울려나와야 하며 필연적으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어장에서의 고기배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배기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일꾼들의 심장에서부터 울려나와야 하며 필연적으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이룩된 성과와 올해 겨울철물고기잡이 전역은 중심어장에 고기배들을 더 많이 진출시키고 운반선들의 역할을 높여 기름과 필요한 물자들을 전전공급하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제기되는 수리전투도 바다창기로서 기동적으로 벌릴 때 보다 큰 물고기잡이성공을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일꾼들은 본격적인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 들어서는데 맞게 다시 한번 준비상태와 보장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미진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전의 하루하루를 자랑스런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건도 두건, 기술적인 지능을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에서는 본격적인 도무제잡이철에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방법을 적절히 배합하고 불배에 의한 전착적업과 2척 트라팔락업과 같은 앞선 물고기잡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제일전투 최후방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청년들은 지난 세기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

얼마전에 시작된 올해의 도무제잡이 어항도 심히 불규칙적이며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직접 어장을 타고앞의 과학적인 어항정보에 기초하여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작업을 능동적으로 조직시행하여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이룩된 성과와 올해 겨울철물고기잡이 전역은 중심어장에 고기배들을 더 많이 진출시키고 운반선들의 역할을 높여 기름과 필요한 물자들을 전전공급하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제기되는 수리전투도 바다창기로서 기동적으로 벌릴 때 보다 큰 물고기잡이성공을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일꾼들은 본격적인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 들어서는데 맞게 다시 한번 준비상태와 보장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미진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전의 하루하루를 자랑스런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건도 두건, 기술적인 지능을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에서는 본격적인 도무제잡이철에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방법을 적절히 배합하고 불배에 의한 전착적업과 2척 트라팔락업과 같은 앞선 물고기잡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제일전투 최후방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청년들은 지난 세기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60년대 청년들은 바다로라는 당의 전투적소리를 받들고 풍방사나 온 바다와 싸우며 온 나라에 물고기 사냥대를 안아왔던 전세대들처럼 낚시대를 활무대로 삼고 당의 수산정책을 앞장에서 받드는 전투투사가 되어야 한다.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영웅적인 투쟁정신을 본받아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탐구 도입하는데서 기술이 되고 사자되는 격랑을 맞받아나가는 용기가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면한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최선적대책을 구상하여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로공들을 위해 기울으신 다심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로공들을 위해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청년들은 바다로라는 당의 전투적소리를 받들고 풍방사나 온 바다와 싸우며 온 나라에 물고기 사냥대를 안아왔던 전세대들처럼 낚시대를 활무대로 삼고 당의 수산정책을 앞장에서 받드는 전투투사가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로공들을 위해 기울으신 다심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로공들을 위해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로공들을 위해 기울으신 다심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로공들을 위해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로공들을 위해 기울으신 다심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로공들을 위해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로공들을 위해 기울으신 다심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로공들을 위해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수산부문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로공들을 위해 기울으신 다심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로공들을 위해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동적성과로 빛내이자

사회주의수호선의 최전방인 석탄전선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융양처럼 타오르고있다.

사투리구의 대포도면전들, 동부지역의 모든 탄광들이 당면한 일꾼들의 헌신과 열정에 힘입어 사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있다.

연광의 날에도, 시련의 날에도 위대한 우리 당을 따라 오기 중심의 한걸음 출발을 위한 이 나라 탄부들이 당 제 7차대회에 드릴 자랑한 로동적성품을 마련할 임무를 안고 산악처럼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백두의 넘과 기산을 안고 사냥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에서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사회주의 건설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당정선 일꾼들을 빛나는 로동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의 용감투쟁과정은 당의 요구이자 큰 중산목표이고 드립되는 실천이라는것을 증명해 주었다.

아름차도고만 생각했던 중산목표들이 탄광들에서 승

리적으로 돌파되고 기존의 능력과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골전 실적들이 이 막강, 저 막강들에 세 번이 기록된 자랑찬 현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절바라정신으로 단장하고 대승의 힘은 백두를 넘어 더 위력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견소,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장을 일떠세운 인민군인들과 청년동맹원들, 건설자들이 발휘한 그 기백, 그 정신으로 석탄생산과 골전전투에서 새 상을 올렸다는 새 기록, 새 기록을 창조해나간다는것이 석탄공업부문 일꾼들과 탄부들의 한결같은 열의이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올해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일꾼들과 탄부들의 중산열의를 최대로 폭발시켜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당정선 일꾼들을 맞이하며 물질을 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탄광들의 생산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올리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과학기술을 비약과 전진의 기관차로 삼아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의 모든 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단계별로 계획성있게 실현하

기 위한 사업도 치밀하게 짜고되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석탄생산과 골전전투의 선봉전투를 막아내려는 의의와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새 기록, 새 기록을 창조해나간다는것이 석탄공업부문 일꾼들과 탄부들의 한결같은 열의이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올해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일꾼들과 탄부들의 중산열의를 최대로 폭발시켜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 승리의 신심드높이 공격전에 일제히 진입

####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

이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지켜선 지하막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헌투들과 대결정신을 버리는 격전으로 화하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이 유리하게 전전되고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되는 설비수송들과 자재를 막 장들에 이르기까지 공급해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 석탄생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탄광부처공장과 탄광건설 사업소에서는 영구부처생산 설비를 높은 수준에서 끌어올리고 마그네사동발생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면서 석탄생산을 늘릴수 있는 전망도 열어나갔다.

뿐만아니라 탄부외로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조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빛나는 로동적성과로 맞이하려는 탄광기업소탄부들의 중산열의를 더해주고있다.

석탄중산투쟁에서는的確한 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성탄광, 북상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인포탄광과 최안탄광, 독자지구탄광연합기업소 특강청년탄광 그리고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함남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탄광들이 혁신의 앞장에

나섰다. 이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지켜선 지하막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헌투들과 대결정신을 버리는 격전으로 화하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이 유리하게 전전되고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되는 설비수송들과 자재를 막 장들에 이르기까지 공급해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 석탄생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탄광부처공장과 탄광건설 사업소에서는 영구부처생산 설비를 높은 수준에서 끌어올리고 마그네사동발생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면서 석탄생산을 늘릴수 있는 전망도 열어나갔다.

뿐만아니라 탄부외로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조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빛나는 로동적성과로 맞이하려는 탄광기업소탄부들의 중산열의를 더해주고있다.

석탄중산투쟁에서는的確한 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성탄광, 북상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인포탄광과 최안탄광, 독자지구탄광연합기업소 특강청년탄광 그리고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함남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탄광들이 혁신의 앞장에

나섰다. 이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지켜선 지하막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헌투들과 대결정신을 버리는 격전으로 화하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이 유리하게 전전되고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빛나는 로동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화려한수송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철도국 북상철도분국에서- 분사기자 김경명 찍음

### 다음해농사에 쓸 물확보투쟁을 과감하게

#### 전국 각지에서

우리 당역사에 또 하나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조신로동당 제 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에서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사회주의 건설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이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지켜선 지하막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헌투들과 대결정신을 버리는 격전으로 화하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이 유리하게 전전되고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이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지켜선 지하막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헌투들과 대결정신을 버리는 격전으로 화하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이 유리하게 전전되고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이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지켜선 지하막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헌투들과 대결정신을 버리는 격전으로 화하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이 유리하게 전전되고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 설치사업 적극 추진

#### 각지 온실남새생산기지들에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뜻있게 맞이할 불타는 열정을 떨쳐내신 각지 온실남새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 설치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국토처에 마늘, 배추, 양파, 감,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자두...》

이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지켜선 지하막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헌투들과 대결정신을 버리는 격전으로 화하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이 유리하게 전전되고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는 장기간 폐암으로 치료받다가 주제 104(2015)년 11월 7일 10시 10분 94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리을설동지는 백두산혁명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쟁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전초선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온 항일혁명투사이며 우리 당의 충직한 로혁명가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식민지강국노의 비참한 처지를 강요당하던 리을설동지는 어린 나이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혁명투사로 자라났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술적방침을 전격적 옹호관철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대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리을설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보위하는 책임적인 직무에서 사임하면서 안락의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적으로 사수하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을설동지는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서 인민군인들을 원수적멸애로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부관장의 중책을 지니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과 결탁한 미제의 공중폭격과 압해행동으로부터 혁명과 조국의 운명을 결사수호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공헌하였다.

리을설동지는 전후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수령옹위의 1선초소와 조선인민군대전함대들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일찍이 조국해방의 서광이 밝아오면 백사적시기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리을설동지

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으로 단결약된 백두산혁명 강군,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리을설동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인민의 결출한 령도자, 창조와 건설의 영재, 최세의 정치가로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며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의 로투사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고무추동하였다.

리을설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리을설동지의 생애는 당과 수령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한생애이다.

리을설동지의 서거는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리을설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 104 (2015)년 11월 7일

# 리을설동지의 락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는 주제10(1921)년 9월 14일 함경북도 김책시의 빈농가에서 출생하였다.

리을설동지는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명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 투쟁투쟁에 참가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동지는 주제26(1937)년 7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 사령부 전령병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술적방침을 받들고 군사장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항일 투쟁대열을 강화하고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데 공헌하였다.

리을설동지는 해방후 인민군대의 중요직책에서 사임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장으로 결사옹위하였으며 인민군대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리을설동지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대대장, 군사부사단장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술적방침을 받들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분쇄하며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부관장으로서 조선혁명을 보위하는데서 특출한 공적을 세웠다.

동지는 전후시기부터 조선인민군 대령부대, 대원합부대들의 지휘정령을 거쳐 호위부대와 최고사령부의 중요직책을 력임

하면서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명군체제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무적의 군력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리을설동지는 주제55(1966)년 10월부터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주제59(1970)년 11월부터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주제51(1962)년부터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으로 선거되었으며 주제 69(1980)년 10월부터 주제 99(2010)년 9월까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주제79(1990)년 5월부터 주제92(2003)년 9월까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특출한 공로로 하여

3상의 김일성총장, 김정일총장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공화국 2중영웅칭호,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급의 당 및 국가표창을 받았다.

리을설동지는 주제84(1995)년 10월 조선인민군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리을설동지는 주제104(2015)년 11월 7일 오후 병환끝에 서거하였다.

리을설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호위전사로서,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서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리을설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
2. 고 리을설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김정은			
위원 김영남	전일춘	김택구	리영철
황병서	김용수	리동춘	장동운
박봉주	정명학	전경갑	김도운
김기남	김희택	김상학	로홍세
최태복	진경남	방판복	리정배
박영식	김영춘	안지용	윤희환
리영길	현철해	윤병권	신기철
양형섭	김정각	김명균	김경룡
강석주	리하일	주동철	한표섭
리용무	서홍찬	최재복	리영남
오국렬	림광일	위성일	한호철
김원홍	노광철	방두섭	리정철
김양진	조남진	리성국	조기복
박범기	럼철성	장정남	주송남
오수용	조경철	김명남	권영진
김평해	윤동현	김영복	고원남
최부일	김형룡	리봉죽	주제욱
로두철	윤정린	최두용	장영길
조연준	김명국	한창순	김동철
임철웅	려춘석	박수봉	진광철
김덕훈	리명수	김금철	박일수
김용진	최경성	리봉춘	태종수
리무영	리태철	송석원	김수길
리철만	정명도	강순남	박태성
김영대	강동윤	송영진	리만건
류미영	전창복	김송철	박영호
황순희	김윤심	김광수	김제봉
김철만	김기신	허성일	박정남
김옥순	박재경	리용주	전승훈
박경숙	손칭남	최영호	리상원
리영숙	전태봉	김택관	강양모
리일환	리용주	김정덕	김영림
김춘섭	최영호	김영일	홍신욱
김만성	김택겸	허영춘	조춘봉
최상진	김영철	손철주	전용남
리영배	오금철	박영래	주영길
김정임	김정관	김국창	리명길
김중협	김성덕	주동철	김정순
홍인범	리창한		
김경욱	동영일		
최휘	리문국		
김충일	한광상		
리병철	리규만		

# 고 리을설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에서

고 리을설동지의 영구는 중앙로동자회관에 안치되어 11월 8일 16시부터 11월 10일 19시까지 열립니다. 고인과 영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조객들은 11월 11일 9시에 고인의 명구를 받들인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총장대대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어느해 가을 일요일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김일성의 백두산입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에 나가서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하시였다. 어느덧 점심식사시간이 되어 학생들은 그이를 모시고 한자리에서 둘러앉았다.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하고있을 때였다. 농장의 한 일꾼이 바구니에 빨갛게 익은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한가득 담아가지고 왔다. 그는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사고 농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린 다음 농장 파수원에서 탄 사과인데 맛을 보셨으면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원들의 정성이 깃든 사과인데 모두 잘자고 하시면서 그 보답으로 오후에는 일을 더 잘하자고 하시였다.

# 언제나 안고 사신 백두산눈보라

학생들은 사과를 맛있게 즐기 시작하였다. 그때 불쑥 한 동무가 자기 고향에서 나는 사과이름을 부르는데 그 맛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고향사과를 하였다. 그러자 벌방에 고향을 둔 동무가 사과도 좋지만 자기 고향에 나는 도마도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면서 고향의 이름이름을 풍취와 특산물에 대해 흥미가 나서 이야기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사파와 도마도로부터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웃음어린 안색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기께서 사파와 도마도 맛을 보셨으면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원들의 정성이 깃든 사과인데 모두 잘자고 하시면서 그 보답으로 오후에는 일을 더 잘하자고 하시였다.

특유한 풍지입니다. 백두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유서깊은 곳입니다. 순간 학생들은 승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시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신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백두산을 자신께서는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있다고 드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들이 경건히 우러르는 학생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가 장군님처럼 파도치는 밀밭과 사나운 눈보라를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계시는분이 력사의 그 시에 눈보라강군, 파도한 공적자.》** **《학생들에게는 우리 장군님의 교시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추억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수령님처럼 백두산은 보라와 함께 얼룩한 시련과 난관을 백두의 담력과 의지로 헤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시 위대한 혁명가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선연으로 길이 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 잊을 력사의 그날처럼 백두의 눈보라를 남달리 사랑하시며 백두산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사시였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마다, 새로운 구상을 무드시키고 새로운 결정을 다지실 때마다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며 눈보라를 맞으시며 중대한 사색을 펼치시였다. 일이 힘들고 생각이 많을 때에도 백두산에 오르시며 어머니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백두의 눈보라에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고구려를 받으시며 눈보라강군, 파도한 공적자로서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즐기게 이끌어

# 학습을 실속있게

덕성관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연설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모든 당원들과 관부들 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부터가 로작의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학습한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관부들에게 해설해주어 그들이 로작의 진수를 한히 꿰뚫도록 하고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 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라고 하시는데 대하여 해설하면서 하는같은

# 이 사랑, 이 믿음은 최후승리를

향해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막아주고 오직 당을 따라 끝까지 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새겨준다고 격조 높게 이야기하였다. **《로작의 내용들을 현실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해설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부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결의의식을 단단히 굳히겠다고 하였다.》** **《로동동원 연 전 행**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에 열사복무하자!

## 대중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부터 풀자

### 남양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일군들이 종업원들과 한올타리, 한올장에서 일하고 나서 결코 그들과 친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가까워지면 종업원들이 안타까워하고 절실히 바라는 문제부터 풀기 위하여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이것이 남양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부무관념이고 기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고!》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초급당에서 한올산동무가 로동자합숙을 개선할 때에 대한 안을 내놓았을 때였다.

문제는 이것을 이 일대 팔소매를 걸어붙이고 나서 할 일 부 일군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의 적실성을 깨닫는 것이었다.

물론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종업원들의 요구로 보

나 당의 의도로 보나 학습개선 공사는 미흡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다.

대중이 절실히 바라는 것을 풀어야 할 사업 원칙이다.

이렇게 문제를 본 초급당위원회는 학습개선공사가 일군들에게 대중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풀어주어야 한다는 높은 관심을 세워주는 계기로 되도록 이끌어 나갔다.

탄광물체과 학습개선공사에 착수하던 날 현지에서 열린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종업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일군은 사실상 일군자격이 없다고 본다. 학습개선이야말로 우리 일군들의 인민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일군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후방일군들과 시골일군들로 구성된 학습개선공정 로동자합숙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였다.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합

숙을 꾸려주기 위해 바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어렸다는 학습의 이모저모를 돌아보면서 일군들은 자책감에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그후에도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남양탄광 화력발전소로 비호하여 로동자합숙을 잘 꾸려놓는 단원이라 우정 시간을 내어 찾아갔다. 그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는 학습개선공사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감들이 적혀져 있었다.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사에 제일 걸린 문제의 하나인 물체를 해결하기 위한 일일 일감을 들이대었다. 일군들의 헌신성은 돌격대원들을 고무해 주었다. 너털후에는 전선과 세면장, 위생실, 한중칸이 딸린 목욕탕, 리발실 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로동자들의 보급차리가 훌륭히 개조되었다. 학습생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민 오일실들 마다에는 텔레비전과 목욕기, 펌프, 가마솥도 그럭저럭 갖추어졌다. 반듯하고 포장된 학습차 당에는 배구장도 생겨났다. 이곳 종업원들은 흡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사에 제일 걸린 문제의 하나인 물체를 해결하기 위한 일일 일감을 들이대었다. 일군들의 헌신성은 돌격대원들을 고무해 주었다. 너털후에는 전선과 세면장, 위생실, 한중칸이 딸린 목욕탕, 리발실 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로동자들의 보급차리가 훌륭히 개조되었다. 학습생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민 오일실들 마다에는 텔레비전과 목욕기, 펌프, 가마솥도 그럭저럭 갖추어졌다. 반듯하고 포장된 학습차 당에는 배구장도 생겨났다. 이곳 종업원들은 흡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파괴구역담당위원회 파장 류성학동무의 집에서부터 구역당위원회 청사까지는 2km이다.

20분이면 충분해 가지고 남을 거러이다.

그러나 그는 정액 1동 60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류성학동무에게 만나기 위해 가끔 출근길을 예뻐다닌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 진정반근골

류 다 른 출 근 길

데 이제는 습벽처럼 되었다. 명절날에는 물론 류성학과 평범한 날에도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간다.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양제를 가져다준 적은 그 얼마인지는 모르다.

지난 3월 어느날은 류성학 동무의 집에 들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일남이면 그들을 찾아가곤 그랬다.

몸을바라 물라하는 그에게 류성학동무는 꽃송이와 내의를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안겨주며 선군시대의 영원한 한맺기의 꽃이 되기를 절절히 부탁하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 종업원들의 목소리에 키를 기울이며

### 첨진화학섬유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나는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고 있는가?

이것은 당일군들이 늘 가슴속에 안고 사는 물음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대중의 평가에서 찾아야 한다. 대중이 만족하게 여기는 일을 해놓을 때, 모든 종업원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꽃을 피워 줄 때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자랑할 수 있다.

첨진화학섬유공장 초급당일군들이 이것을 검증받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어느날이었다.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정형을 총괄해보는 초급당에서 령영근로자의 얼굴에는 만족의 빛이 어렸다. 큰단배물생산기계가 은을 내어 태지고기생산기에 부착 높였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기른 새끼를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공급하였고 오리고기생산기계에 성과가 이룩되었다. 얼마전에는 바섯제배장에서 생산한 바섯을 혁신자들에게도 시식하게 하였다. 후방사업이 날로 개선되어간다는 생각에 절로

못해지는 마음을 안고 그는 사무실을 나왔다.

구내길을 걸던 그의 발걸음이 점차 무거워졌다. 앞서가는 녀성종업원들의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던 것이다. 바섯제배장에서 생산한 바섯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다 공급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초급당에서는 적도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바섯제배장의 생산능력이 아직은 종업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혁신자들에게만 공급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두고 만족해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녀성들은 어둠속에서 점차 멀어져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초급당비서에게 깊은 어운을 주었다. 비록 우연히 들게 된 이야기였지만 거기에 대중의 심리가 비껴있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스칠 수 없었다.

이날 밤 회의가 열렸다.

바섯제배장을 10배정도 확장하자는 초급당비서의 발기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로력도 자재도 긴장한 형편에서 당장 그렇게 큰 공사를 하기는 힘들다. 먼저 일정한 규모로 확장하고 다음번에 좀더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초급당비서는 일군들에게 전

날 차가 체험한 사실을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에게 덕을 주지 못하는 그런 확장공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명의 마음속에도 아쉬움이 갖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연전적 수백평규모의 바섯제배장확장공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중군사위원회 하진 박사 친연실을 심장에 새기고 더욱

더 분발해나선 초급당일군들의 높은 열의에 떠받들려 종업원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물질적조치가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당일군들이 한사람의 목소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키를 기울여 대중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 대중에게 실지로 필요한 일을 해놓을 수 있으며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는 참된 당일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순영

## 왜 살림집건설을 앞세웠는가

### 수안군 룡포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제는 습벽처럼 되었다. 명절날에는 물론 류성학과 평범한 날에도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간다.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양제를 가져다준 적은 그 얼마인지는 모르다.

지난 3월 어느날은 류성학 동무의 집에 들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이제는 습벽처럼 되었다. 명절날에는 물론 류성학과 평범한 날에도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간다.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양제를 가져다준 적은 그 얼마인지는 모르다.

지난 3월 어느날은 류성학 동무의 집에 들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이제는 습벽처럼 되었다. 명절날에는 물론 류성학과 평범한 날에도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간다.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양제를 가져다준 적은 그 얼마인지는 모르다.

지난 3월 어느날은 류성학 동무의 집에 들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고 있다. - 평양 광광동 공장에서 -

# 높은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은 푸른 숲의 밑뿌리이다

## 산림보호사업에서의 성과와 교훈을 놓고

경제는 인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은 뜻깊은 올해에 충동전, 총집중의 열풍을 새겨 일어서는 나무를 심었다. 특히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뚤판리를 전중중적응으로 출제하게 되었다.

방목구역을 봄에 심은 나무들이 심심차라리 없다. 많은 지역에서 나무들의 사물들이 높다. 이것은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 나무를 몇대 심었다는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대를 심었다는 하는 데 있다고 해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심은 나무비뚤판리에 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제 10년으로 이어진 나무들은 키높이 자랄 것이다. 조국방 곳곳에는 푸른 숲이 펼쳐지고 번기순이들은 영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라의 모든 산은 생명의 거가 되고 조국이라는 나무들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수림, 원림, 파수림과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의 국토는 당의 명도인 승리적적으로 진행된 대자연개조사업의 위대한 생활력을 단번에 과시할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산림조성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동시에 산림보호사업도 더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풍부히 하고 산림생산을 높일뿐 아니라 산림의 물방아기능을 높여 여러가지 자연재해를 막고 국토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잘 보호하려면 산림이 자연부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국토보호적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나라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자연력의 전쟁을 개시한 오늘 산림보호는 산림조성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온 나라의 수림물을 앞당겨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하하다. 산림보호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한그루의 나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산림보호사업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각지에서 산림보호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오고 있다. 구장군에서도 산림보호에 커다란 힘을 쏟고있다.

구장군 하정리에 가면 누구나 감탄하는 울음장막한 수림을 볼 수 있다. 그 면적은 700정보에 달하는데 창성이갈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빼어나고, 이와 같은 충실한 산림이 지역의 토지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런 산림이 저절로 생겨났기 아니라라는 것이다. 이곳 산림감동원들과 주민들이 수십년간 해마다 많은 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면서 산림보호사업을 잘하여 이룩한 결실이다. 구장군에서 산림보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 땀나땀 흘려 나무를 하는 경우에도 큰 나무의 큰 가지나 낙엽만을 거두면서 한그루의 나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높이고 싶을 수 있다. 주민들속에 이처럼 산림보호정신이 자립하게 된 것은 일군들이 군중요양사업을 실속있게 벌여왔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당의 산림보호정책에 대한 해설사업을 일상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는데 1,500여점의 직관전전물을 게시하여 산림보호본위를 더욱 고조시켰다. 산물을 일으키지 않고 나무를 망망 찍지 않는 등 산림보호규정과 산림리용지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준법교양도 공적으로 벌려왔다. 이와 같은 사업사업, 정치사업의 효과가 바로 하정리에 조성된 수백정보의 산림에 비껴있는 것이다.

고원군에서도 산림보호사업을 잘하여 산림자원을 높이고있다. 앞으로는 각종 나무들이 들어선 다채로운 풍요한 산림을 이루게 될 수 있다. 1,000여정보에 달하는 이 산림에도 오랜 세월 푸른 숲을 가꾸고 기원하는 주민들의 높은 책임성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야 한다.

고원군에서는 지난 기간 나무를 많이 심

는 것과 함께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호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광범한 대수림을 산림보호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사상 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다채리만 보더라도 이곳에서는 연 7만 3,000여명명 대상으로 1만 6,200여회에 달하는 주민정치사업이 진행되었다.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모두가 산림의 진정한 보호자, 관리자가 될 때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존하고 늘일 수 있다는 자각과 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과정에 산림보호의 열풍이 온 군에 일어났던 것이다. 다채리에도 리용정망이 온 산림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동군, 태천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산림보호사업이 잘되고있는 것도 모든 주민들이 높은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보호하고 늘일 수 있다는 자각과 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과정에 산림보호의 열풍이 온 군에 일어났던 것이다. 다채리에도 리용정망이 온 산림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동군, 태천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산림보호사업이 잘되고있는 것도 모든 주민들이 높은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보호하고 늘일 수 있다는 자각과 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과정에 산림보호의 열풍이 온 군에 일어났던 것이다. 다채리에도 리용정망이 온 산림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동군, 태천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산림보호사업이 잘되고있는 것도 모든 주민들이 높은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보호하고 늘일 수 있다는 자각과 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과정에 산림보호의 열풍이 온 군에 일어났던 것이다. 다채리에도 리용정망이 온 산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는 습벽처럼 되었다. 명절날에는 물론 류성학과 평범한 날에도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간다.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양제를 가져다준 적은 그 얼마인지는 모르다.

지난 3월 어느날은 류성학 동무의 집에 들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이제는 습벽처럼 되었다. 명절날에는 물론 류성학과 평범한 날에도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간다.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양제를 가져다준 적은 그 얼마인지는 모르다.

지난 3월 어느날은 류성학 동무의 집에 들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이제는 습벽처럼 되었다. 명절날에는 물론 류성학과 평범한 날에도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간다.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양제를 가져다준 적은 그 얼마인지는 모르다.

지난 3월 어느날은 류성학 동무의 집에 들렀다.

류성학동무가 그를 알게 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파인

지난 2월 중순 어느 한 려차에 몸이 불편한 한 녀성이 나왔다.

해주시 서애동 6인민반에 살고있는 녀성이었다. 그는 려차정도로 가는 길이었다. 려차가 원산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 녀성은 너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력적전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산시당위원회 부장 오덕철동무는 의료인들과 함께 려차에 올랐고, 승용차에 그 녀성을 태운











